

동양제철화학, 전자화학 시장 재진출

전자소재 생산기업 소디프신소재 인수 ... 전환사채 250억원 인수 통해

동양제철화학이 전자소재 사업에 진출한다.

동양제철화학은 코스닥 등록기업인 소디프신소재가 발행한 250억원의 전환사채(CB)를 12월1일부로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소디프신소재 이영균 사장의 보유지분 일부도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다.

동양제철화학은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해 <경영참여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지분을 매입하더라도 회사 경영은 이영균 사장이 계속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소디프신소재는 1999년 코스닥 등록기업으로 반도체와 LCD 제조공정에 필수 사용되는 삼불화질소(NF3), 모노실란(SiH4), 육불화텅스텐(WF6)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 하이닉스반도체 등 국내 우수기업과 외국 반도체기업 등을 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 2004년에 매출 490억원을 올렸다.

동양제철화학 관계자는 “소디프신소재가 생산하고 있는 신소재들은 반도체·LCD 산업과 동반 성장해가고 있으며 매년 25% 이상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세계시장 100%가 한국, 타이완, 일본, 중국에 집중돼 사업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동양제철화학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화학 기술력과 소디프신소재가 보유한 반도체·LCD 관련 영업·마케팅 노하우를 접목해 전자화학 사업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5/12/02>